

### 13. 번식 효율 향상을 위한 사양관리 개선 방안은?

번식우 농가의 사육여건 중

- ① 번식우 1두당 사육면적을 10㎡ 이상으로 늘리고
- ② 전 우군의 신체충실지수(BCS)를 2.5~3.0 비율이 90% 이상이 되도록 사육하며
- ③ 개체기록카드를 활용하여 개체기록을 유지해야 한다.
- ④ 4월~10월만이라도 양질의 조사료를 급여(벧짚과 혼합 급여 가능)하도록 하고, 분만 전·후 210일 동안(분만 전 90일~분만 후 120일) 농후사료를 체중의 1.5~1.8% 정도 급여와 조사료를 자유 채식으로 사육한다.

분만 전·후의 영양수준 개선에 의한 분만 간격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분만 전 3개월간 태아의 성장이 빠른 시기와 송아지를 포유하는 분만 후 3개월간, 총 6개월간을 사양표준의 120% 수준으로 사료를 급여하면 분만 간격이 369.1일로 단축된다.

(한우연구소 / 033-330-0693)